

고등학교 신설 특수학급 담당 교사들의 직무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김 용 옥

대구대학교

박 형 진*

대구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는 고등학교 신설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발령을 받고 부임한 후 일반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특수학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결실들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 3월 1일자로 발령받은 고등학교 신설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세 명에 대해 2012학년도 7월까지 5개월간에 걸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세 특수교사의 직무 경험을 연구하였다. 인간의 경험과 문화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러티브적 탐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최근 내러티브적 탐구가 인간 경험의 연구에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교사의 경험과 경험을 유발시키는 주변의 여러 가지 문화적 맥락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연구 방법이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 관리자 및 동료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특수교사와의 관계,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에 대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몇 단계를 거쳐 직무 경험을 성장시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예기치 못한 문제와 대면하는 단계, 둘째, 시행착오 하는 단계, 셋째, 고민과 개선의 노력을 통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신설 특수학급 담당 교사는 낯선 교육 환경에 점차 적응하고 성장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고등학교 신설 특수학급, 직무 경험, 내러티브 탐구

* 교신저자(phj9893@hanmail.ne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합교육의 흐름에 따라 많은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당연히 특수학교가 아닌 특수학급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12).

국립특수교육원이 2012년 3월 6일 발표한 '2011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1971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립되었던 1개의 특수학급은 1만 2,257개 학급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향후 2014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2,300여 학급이 신·증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처럼 특수학급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통합환경에서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 동안 정부뿐만 아니라 특수교육학계의 전문가,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특수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라 볼 수 있다.

매년 2월 말이면 전국의 학교는 교사들의 전출과 전입, 신규발령으로 매우 분주하다. 물론 이 중에는 특수학급에 발령을 받은 특수교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 학교로 향할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특수학급을 운영할 것인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비장한 각오도 다져 볼 것이다.

본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관심에서 출발되었다. 연구자와 특수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던 많은 동료교사들이 일반학교의 신설 특수학급으로 전출하는 수가 많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기 설치된 일반학교와는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들이 신설 특수학급을 개설·운영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과의 관계는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 이러한 경험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지 궁금하였다. 아래는 신설 특수학급에 발령 난 특수교사의 전출학교에 대한 이야기이다.

제일 처음에 어이가 없었던 게 특수학급에 편성된 학생들이 통합학급에 적어 없이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만 있어야 하고, 학급 편성을 아예 특수학급으로 별도로 편성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희망고는 통합학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금요일 날 발령이 나고 월요일 날 가기까지 주말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장애인 관련법도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그랬어요. 기존 특수학급에 있는 주변 특수교사들은 "왜 통합학급이 없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건데..." 라고 말하고...(중략) 지금도 사실 막막해요. 왜냐하면 제가 특수학교에서 근무할 땐 예산 계획을 세워보지도 않았고, 신설학급

개설 비용으로 2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라는데... 제가 이런 것을 해본적도 없고 도대체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하는지 모르니까 답답해요, 이전 근무지에서 는 제가 행정실과 얘기할 것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다 그래야 하니까 처음에도 막막했고 지금 도 하나하나 해나가야 하는데...너무 막막해요,

뭔가를 의논드릴 일이 있으면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 특수학급 선생님께 많이 물어 봤어요,

이런 일은 내가 교무부장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하는지 에 대한 업무 처리 시스템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곳 이 없는 것 같아요.(후략)(2012년 3월 3일)

위의 이야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답답해요’와 ‘막막해요’라는 표현이다. 특수학교에서 5년간의 교직경험을 한 경력교사가 전출 발령을 받고 착임계를 작성하 러 희망고에 갔던 시기에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답답해요’, ‘막막해요’라고 반복 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통합교육의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특수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신설 특수학급 담당교사로서 느끼는 일반학교 관리자 및 일반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청과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 체계 활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더욱이 신규교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막연함과 불안함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기존 특수학급에 발령이 나는 것에 비해 단기간에 많은 경험을 해야 하는 신설 특수학급 담당교사로서의 직무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을까? 학부모의 경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교사가 자신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특수학급의 담임이라면 어떻게 받아드릴까?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풀려나가고 있는지 본 연구자는 알고 싶었다.

통합교육 현장에 있는 특수교사나 일반교사 모두 통합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일반학교의 준비 부족, 일반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지식 부족 등 일반교육 맥락에서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박승희, 2003). 반면 신설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겪는 직무수행의 어려움과 해결 과정은 논의의 맥락에 따라 특수교사의 자질 및 일반적 배경, 행·재정적 지원, 특수학급의 운영 환경 등으로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곽지혜, 김호경, 박원희, 2009). 특히 신설 특수학급을 맡은 특수교사의 경우 해당 학교의 관리자나 동료교사, 행정실 입장에서는 뭔가 미숙하고 부족한 교사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신설 특수학급에 발령 난 교사가 어떻게 직무 경험을 하는지,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면 신설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동 협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설 특수학급에 발령을 받은 특수교사가 학급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당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변해 가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인 신설 특수학급으로 발령을 받은 특수교사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즉 이야기)와 연구자와의 연구 면담을 통한 다시 이야기하기를 통해 얻은 내러티브를 소재로 삼아 세 특수교사가 겪는 직무 수행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설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의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내어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특수학급을 담당하게 될 다른 특수교사 및 예비 특수교사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교육당국 및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특수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나아가 상호협력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분석

특수학급교사의 직무 경험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수학급교사들의 직무 경험에 대한 양적 연구는 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2000년 이후의 연구들은 사인희(2001), 이기영(2001), 강윤구(2002), 전을숙(2004), 김순희(2007), 노현지(2007), 김경숙, 이점조(2008), 광지혜, 김호경, 박원희(2009), 김영한, 추경진(2010), 강선화, 정길순, 노진아(2010) 등이 있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특수학급교사들은 수업활동, 행정업무, 생활지도, 인간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신설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기 설치된 특수학급의 특수교육 담당교사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한, 추경진(2010)의 연구에서는 그들의 연구가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자기 보고형식으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 스트레스, 교사 효능감의 관계 및 영향 등을 살펴보았으나 그 과정의 형성 및 변화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제한점에 대해 과정의 변화에 대한 경로 분석 혹은 질적인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연구자들도 제언하고 있다. 신설 특수학급교사의 직무 경험에 관한 광지혜, 김호경, 박원희(2009)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신설 특수학급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신설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가급적 특수학급 경험이 있는 교사나 경력교사를 우선 배치해야 하며, 그들이 특수학급 신설

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즉, 특수교사에게는 특수학급 신설에 대한 연수와 지원이 필요하고, 특수교육 전공 학생들에게는 기존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된 교과목에 신설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특수학급 교육실습을 통해 실제적 운영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신설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공식적인 매뉴얼과 지원 인력이 없는 실정을 고려하여, 신설 특수학급 지원팀과 신설 특수학급 운영 매뉴얼 구성 및 지원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여 신설 특수학급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셋째, 특수학급 신설 확정 후 해당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신설 특수학급 설치 확정 후 해당 교육청 또는 신설 특수학급 지원팀의 장애 이해교육과 특수학급 운영 등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통합교육 여건 조성의 문제는 특수학급 담당교사 혼자만의 몫이 아닌 특수교육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한 이 연구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설문조사 방식의 양적연구로는 신설 특수학급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의 구체적인 양상이나 현행 체제에서의 문제해결 과정을 밝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일반 초등학교 초임 특수교사의 고충과 교직 적응 지원 방안에 관한 김향지(2009)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발령을 받은 초임교사들의 어려움을 수업활동, 행정업무, 생활지도, 인간관계 측면에서 살펴 본 결과 교원양성 기관의 직전교육, 신규 임용 예정 교사에 대한 연수, 발령 후 현장 적응을 위한 멘토 교사제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그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대한 질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특수학급 교사들의 직무 경험에 대해서 관찰, 면담하거나 내러티브 분석을 수행한 질적 연구는 황순영(2006), 이상은, 조원일(2009), 김향지(2009), 양승기(2010), 최월순(2011) 등이 있으나, 양적연구에 비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수학급 교사들의 직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들은 대체로 4~20명의 특수학급 교사들을 관찰, 면담하거나 이들의 내러티브를 분석하였다. 초임 특수교사의 교직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황순영(2006)의 연구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의 직무 경험에 관한 이상은, 조원일(2009)의 연구는 초임특수교사와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의 교직 적응과정 및 직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현상 유형과 해결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들로서, 질적 연구로서의 연구 성과와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 연구의 대상자(연구 참여자)가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로서, 연구자가 알아보고자 하는 고등학교 신설 특수학급과는 다소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차이점이 있었고, 현장의 특수교사들이 겪는 직무상의 어려움에 대한 유형과 원인에 대한 탐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교사의 경험과 경험을 유발시키는 주변의 여러 가지 문화적 맥락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선행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들은 현재의 특수학급 교사의 직무에 대한 어려움과 그 원인과 유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주력하였고 그 연구 대상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혹은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등학교 신설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직무 경험을 분석하고자 첫째, 5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이 있는 신설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둘째, 이들이 이미 겪은 직무 경험을 면담한 후 내러티브 분석을 통하여 단순한 교육 경력 부족에 기인한 원인이 아닌 신설 특수학급 현실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알아보았고, 셋째, 동시에 이들의 직무 경험과 직무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특수교사의 근무 형태 중에서 가장 외롭고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설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직무 경험과 어려움에 대한 해결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다른 특수교사와 예비교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며,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고등학교 신설 특수학급의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방안과 이들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교 신설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발령을 받고 부임 후 일반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특수학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결실들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심도 있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경험과 문화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러티브적 탐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왜냐하면 최근 내러티브적 탐구가 인간 경험의 연구에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며(Clanddinin & Connelly, 2000; MacIntyre, 1981; Polkinghorne, 1988),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교사의 경험과 경험을 유발시키는 주변의 여러 가지 맥락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연구 방법이기 때문이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하늘시의 고등학교 신설 특수학급에 발령을 받아 부임한 3명의 특수교사이다. 먼저 조 교사는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하늘시의 정신지체 특수학교에 첫 발령을 받아서 5년간의 근무를 마친 뒤 2012년 3월 1일자로 희망고에 발령을 받은 교사이며, 두 번째 박 교사 역시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하늘시의 정신

지체 특수학교에 첫 발령을 받아서 5년간의 근무를 마친 뒤 2012년 3월 1일자로 사랑고에 발령을 받은 교사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배 교사는 경기도 사립 특수학교에서 13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하여 하늘시의 정신지체 특수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5년간의 근무를 마친 뒤 2012년 3월 1일자로 사랑고에 발령을 받은 경력 19년차의 교사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하늘시내의 공립 고등학교 신설 특수학급으로 발령을 받은 교사들 중에 평소 연구자와 친분이 있으며, 직전 학교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한 래포(Rapport)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개시 전에 본 연구의 의의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사전 준비를 거쳐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 아래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인 조 교사, 박 교사, 배 교사의 기초 정보를 간략히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기초 정보

구분	교직경력 (2012.07.20. 기준)	학교 소재	성별	연령 (만)	남녀공학 여부	결혼유무	담당 학년
조 교사	5.04	하늘시	여	29	× (여고)	○	1
박 교사	5.04	하늘시	여	31	○	×	1
배 교사	18.04	하늘시	여	41	○	○	1, 2학년

2. 내러티브 탐구 방법 및 절차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인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에 적합한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이다.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일반적으로 ① 현장에 존재, ② 현장 텍스트로 이동, ③ 현장 텍스트 구성, ④ 경험에 대한 의미 구성, ⑤ 연구 텍스트 구성이라는 5단계로 구성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러티브 탐구 과정을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인 다섯 단계를 적용하였다.

첫째, 1단계로 ‘현장에 존재하기’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설명과 연구 참여 동의를 얻고자 예비면담을 1회씩 실시 한 후, 학교 현장 즉 연구 현장을 방문했으며, 기본적인 정보 및 근무환경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둘째, 2단계로 ‘현장 텍스트로 이동’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한편으로 연구 참여자가 ‘신설학급에서의 직무’ 를 경험하고, 다른 한편으로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관찰하는 단계이다. 자료 수집을 하면서 동시에 분석이 시작되었다. 현장 안에 있으면서도 현장 텍스트를 쓰고 읽을 때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더 큰 맥락 안에서 보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3단계로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단계이다. 이는 Walsh(1998)의 자료 생성하기(generating data) 개념과 비슷하다. 내러티브 연구에서의 자료는 발견하거나 찾은 것이 아니라 현장 경험의 양상을 나타내기 위해 참여자와 연구자에 의해 창조된 것(Clandinin & Connelly, 2000)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는 연구 참여자인 세 교사의 경험을 연구자가 관찰과 면담을 토대로 연구 면담 노트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 교사 심층면담, 사진 등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2012년 7월 20일 까지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자료 즉 현장 텍스트인 연구 면담 자료(녹음)의 수집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의 연구 참여자들과의 연구 면담은 초기 1개월간은 1~2주에 1회씩 이루어졌고, 나머지 기간은 2~3주에 1회씩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와의 연구 면담 횟수는 총 33회로, 1명과의 연구 면담은 11회였다. 심층면담, 전화, E-mail를 통한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 아래 녹음을 하고 가감 없이 1차 전사하였다. 이후 전사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와 특수교육학 박사과정 1인, 교육학 석사 학위를 소지한 현장교사 1인에게 검증을 받아 본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다.

넷째, 4단계로 ‘경험에 대한 의미 구성’ 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현장 텍스트에 나타난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인 내러티브 구성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① 신설학급 교사들의 연구 면담 1차 전사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어 보면서 신설학급 교사들의 직무 관련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② 시간 순으로 정리된 현장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텍스트들의 유사점과 연관성 등을 묶고 정리하면서 소주제를 추출하였다. ③ 세 교사의 신설학급 직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가 세 교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④ 위의 관점에서 각 면담자료의 분석을 위해 Spradley(1980)가 제안한 분류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류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자료를 먼저 한글200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사한 자료를, 엑셀2007을 이용하여 해당되는 내용을 범주화 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은 다음 회 참여관찰이나 면담 시 질문하거나 관찰해야 할 내용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자료 수집은 더 이상 새로운 의미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연속적인 3단계 자료 수집과 4단계 분석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와

특수교육학 박사과정 1인, 교육학 석사 학위를 소지한 현장교사 1인에게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그 경험의 의미가 제대로 분류되거나 드러났는지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내부자적 관점과 외부자적 관점에서의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 하였다.

다섯째, 5단계로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단계’이다.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구성한 텍스트를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자유로이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연구 텍스트에 연구 참여자의 의견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IV. 신설학급 교사의 직무 경험 이야기

이 장에서는 고등학교 신설 특수학급에 발령을 받은 박 교사, 조 교사, 배 교사의 직무 경험 이야기를 분석하였다. 세 교사가 겪은 직무 경험 중에서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에 의해 도출된 세 범주, 즉 행·재정적 지원시스템, 관리자 및 동료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특수교사와의 관계,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 교사별로 살펴보았다.

1. 박 교사의 직무 경험 이야기

박 교사는 2012년 3월 1일자 전보발령 결과를 2월 10일에 통보 받고 한동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초임발령을 받아 5년간 근무했던 첫 근무지를 떠난다는 막연한 두려움 외에 신설 특수학급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님을 2월 20일 실시했던 예비면담에서도 알 수 있었다. 그 우려는 발령 받은 학교에 2월 말부터 3월 3일까지의 일주일 동안 박 교사가 특수학급 신설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하면서 현실로 다가왔다.

1)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에 대하여

①에서와 같이 박 교사는 특수학급을 신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인력구성 및 행정처리가 정상적으로 지원되지 않아서, 1년 동안의 특수학급 운영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 정식 출근을 하기도 전에 교육청과 행정실, 업무 관련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06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3권 4호)

① 발령 나기도 전에 공문이 먼저 와서 신청 시기를 놓쳤으면 다시 특수교육보조원을 신청하게 해 줘야지 시기 늦어서 안 된다고 하는 교육청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기안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중략) 추후에 보조원 신청 공문에 대해서 교무부장은 '놓쳤다' 는 말은 안 하고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공문이 안 온건 아니더라고요, 공문이 왔는데 그냥 신청을 안 한 거예요, 2월 27일까지 다 뽑아서 보고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2012년 3월 3일 면담 중에서>

②에서와 같이 박 교사는 부임한 직후 특수학급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행정실과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것은 교육청에서의 예산 지급이 지연되고 한꺼번에 많은 물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② 교장선생님께서 주무관에게 그냥 이것저것 사 달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주무관은 '뭐가 그렇게 살 것이 많아요?' 라고 말하며, 자기가 특수학급의 물건만 주문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며 원가통계목을 뭐로 잡을지 묻는데... 주무관도 특수학급이 처음이라서 모르겠다고...휴...

<2012년 3월 12일 면담 중에서>

③에서 박 교사는 실제 특수학급을 운영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양식조차도 교육청에서 안내 혹은 점검을 해주지 않는 점을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

③ 특수학급을 운영할 때 교육과정이나 개별화교육계획 양식이 있잖아요, 이런 게 정해진 품이 없고 제가 창조를 많이 해야 하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더 필요한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누가 와서 하나하나 점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에게 여쭙 봐야 하고... 안 그래도 업무도 많고 수업 준비도 해야 하는 데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걸리죠,

<2012년 3월 31일 면담 중에서>

④에서는 행정실을 통한 물품 신청건수가 줄어들고 박 교사가 조금씩 행정실과 타협을 하면서 갈등이 줄어들고, 직무에 대한 심리상태가 다소 편안해졌음을 보여 준다.

④ 제가 학급에 필요한 물건을 더 사고 싶은데 사실 사지 않고 있는 것이 많아요...(중략) 행정실에 물품 구매 신청을 뜸하게 했더니 조금 친절해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알아 보시고요, 행정실의 변화가 있어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2012년 5월 4일 면담 중에서>

2) 관리자 및 동료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특수교사와의 관계

특수학급은 특수학교와 달리 여러 부분에서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다수의 일반학급 교사들 사이에서 겪는 교사 조직 안에서 소수자로서의 소외감 등을 들 수 있다(김향지, 2009). ①에서는 박 교사는 관리자 및 동료교사들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전체교직원 출근일(2월 말)때 이전 학교 출근으로 인사를 못 했기 때문에, 첫 날(3월 2일) 다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를 소개하는 순서가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특수교사가 없었으니까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았어요.(중략) 어머니들께서는 왜 특수학급 선생님을 소개도 안 해주냐고, 자기네들은 특수학급 선생님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수학급이 생긴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분위기를 느껴요,

<2012년 3월 3일 면담 중에서>

②에서는 박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관리자인 교장, 교감이 특수학급 학생들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통합교육에 대한 당위성보다는 동정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만 느껴짐을 말하고 있다. 그나마 교장의 경우에는 전 근무지에서 특수학급을 경험하여 우호적이지만 교감의 경우에는 일반학생의 면학분위기 저해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하여 박 교사가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교장, 교감 선생님 두 분 생각은 특수학급 학생들이 통합학급에 가서 공부를 방해할까 봐 걱정하신 것 같아요, 문제행동이 심한 학생, 소리 내는 학생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공개수업 할 때도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셨거든요, 학생들을 통합학급으로 올려 보내지 말고 제가 특수학급에서 다 데리고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12년 3월 31일 면담 중에서>

③에서 박 교사는 회식 자리에서 일반교사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학기 초에 겪으며 가슴에 담아두었던 생각들을 조금씩 나누면서 자신만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인다.

③ 회식 때 대화를 해보니까, 그동안 선생님들은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욕하는 것 같고 학생들 싫다는 식으로 비쳐질 것 같아요, 그런데 회식하면서 부터는 조금 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중략) 저의 눈치를 보거나 미안해서 말 못하던 것을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과 맞서야 된다는 생각은 갖지 않고, 편안하게 대하려고요.

<2012년 4월 19일 면담 중에서>

④에서는 발령 초기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 교무부장이 특수학급에 관심을 보이면서 조금씩 박 교사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교무부장이 중간고사 이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세요, 여학생이 없어서 힘들지 않은지도 물어봐요, 스승의 날 다음날 음료수를 들고 내려오셨더라고요, 관심을 보이시니까 싫지는 않았어요.

<2012년 5월 8일 면담 중에서>

⑤ 교무부장과 더불어 학기 초에 다소 면학분위기 저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 중심의 시선으로 특수학급을 바라보던 교감이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통합학급 일반교사 중에서는 아직 특수학급 학생이 자신의 반에 통합되어 있는 상황이 반감지 않는 일반교사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리자 및 동료교사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단순한 친분을 쌓기 위한 시간과 사고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 학생과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⑤ 교감선생님은 항상 적극적이세요, 제 입장도 잘 헤아려 주시고, 특수학급 학생들과 상담도 해주세요,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그 전보다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중략)그 통합학급 선생님께서는 그 학생에 대한 열의가 좀 없으신것 같아요, 저는 통합학급 선생님께 올려 보내는 게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올려 보내기도 그렇고....

<2012년 6월 2일 면담 중에서>

3)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에 대하여

특수학급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 및 보조 인력의 지원, 그리고 일반학교 관리자 및 동료교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곽지혜, 김호경, 박원희, 2009). 그리고 특수학급 담당교사, 학생, 학부모의 노력 또한 통합교육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일 것이다. ①은 박 교사가 통합교육의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가치 판단의 혼란이 절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① 한 학생이 손으로 유리창을 깨는 바람에 손을 다쳤거든요, 교감선생님은 저에게 이런

부분이나 교실에서 소리를 질러서 내려오거나 하면 다 빼먹지 말고 기록을 해놓으라고 하세요, 기록을 해놓아야 나중에 특수학교에 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저도 '교육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에게는 특수학교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학부모님께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 학생이 힘드니까 특수학교로 보내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2012년 3월 3일 면담 중에서>

② 통합학급 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학교의 현실에 맞게 협의체 구성의 부재로 인하여 특수학급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② 학교에 공식적으로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1학년 부장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제가 직접 일대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학생이 다수인 곳에 장애학생이 들어갔을 때 실제적으로 겪는 문제 등, 우리가 배운 대로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신설 특수학급 뿐 아니라 기존의 특수학급에도 있겠지만 저 자신도 처음 경험하는데 일반학급선생님도 장애학생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2012년 4월 19일 면담 중에서>

③에서는 통합학급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이 있는데,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생활지도 및 현장학습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학급 운영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급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나 일반교사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학생들의 통합학급에서의 적응문제와 일반학생의 장애 인식 교육 및 협력,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③ 처음에는 이 학생이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면 다른 반 학생들이 다 몰려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치 보여서 그 학생을 많이 혼냈어요, 교실에서는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겠는데 밖에 나가면 그게 안돼요, 특수교육보조원이나 공익이 없는 상태라서 현장학습 시 너무 어려워요, (중략) 다행히 특수반학생들도 이젠 잘 적응해서 혼자 잘 올라가거든요, 주기적으로 도우미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좀 소홀해졌어요, 교실 안에서 특수학급 학생을 챙겨줘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2012년 5월 18일 면담 중에서>

4)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2월 발령 후 부터 여름방학을 준비하는 7월까지의 시간 동안 교육청, 관리자, 행정실, 동료교사, 일반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박 교사는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과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부족함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기반성 및 개선의 계기로 삼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어느 새 한 학기가 끝나가네요, 처음 신설 학급으로 발령 났을 때는 정말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직원 여름 연수를 다녀온 뒤 선생님들과도 좀 더 편해진 것 같고요, 특수교육 컨설팅을 통해 좀 더 많은 일반 선생님들이 특수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은 더 꾸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학생들과 일반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이해교육 자료를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전달하지만 정작 제 자신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의감도 들고 힘든 한 학기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들께서는 점점 더 신경 써 주시고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도 지원하려는 편이어서 더 안정적으로 되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도 여유를 갖고 개선될 거라는 믿음으로 노력해 봐야겠죠.

학기 초에는 행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교우관계, 장애인식개선 등에 더 집중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2012년 7월 12일 면담 중에서>

2. 조 교사의 직무 경험 이야기

조 교사는 2012년 3월 1일자 전보발령 결과를 2월 10일에 통보 받은 후, 착임계를 작성하러 학교에 첫 방문을 하고 돌아온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까닭에 희망했던 학교이지만,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할 교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일반교사 및 관리자의 특수학급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접하면서 ‘척척산중’이라는 표현을 2월 20일 실시했던 예비면담에서도 자주 사용하였다. 발령 받은 후부터 7월까지 조 교사는 특수학급 신설 및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된다.

1)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에 대하여

①에서와 같이 조 교사는 특수학급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도움

을 청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급 교사를 위한 연수나 지원체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운영지침을 참고하라는 대답만 듣게 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 겪게 된다.

① 며칠 전에 통합학급 관련해서 ○○○ 장학사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하늘시 특수학급 운영지침'이란 책을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때 한 번 전화했구요, 그 외에는 없어요, 개설하러 간 입장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학급 개설 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연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설학급이 □□구 관내에 6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의 진행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예고 정도만 해주셔도 덜 막연했을 텐데,,,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교육청에 전화해서 물어 보는 게 맞는 건지, 주변 학교에 전화를 해서 물어 보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2012년 3월 3일 면담 중에서>

어느 교사나 새로 발령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는 긴장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기존에 학교에 없었던 특수학급을 신설해야 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조 교사의 입장은 그 보다 더 '막막'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②에서 보여주고 있다.

② 신설학급에 발령 받아서 며칠이 지난 지금도 사실 막막해요, 2천만원이 내려왔는데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라고 하니 도대체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하는지 모르니까 답답해요, 처음에도 막막했고 지금도 막막해요,(중략, 뭔가를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른 학교의 특수학급 선생님께 많이 물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2012년 3월 3일 면담 중에서>

③에서는 창고의 역할을 하던 빈 교실을 배정 받아서 특수학급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물리적 환경을 갖추려면 여러 설비 및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실에서는 관련 업체를 모른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특수학급 담당교사에게 맡기는 것과 관리자와의 의견 차이로 인한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③ 특수학급은 전혀 꾸미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닥공사와 같은 것은 보통 행정실에서 업체 선정해주시는데 그냥 저 보고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전화해서 그 학교에서 거래했던 업체를 소개 받아서 진열장 등의 견적을 냈어요, 어차피 신설학급 교부금 2천만원을

11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3권 4호)

써야 하는 건데, 교장선생님께서 근검절약 정신이 배어 있는 분이셔서 새 물건 사는 것을 싫어 하신데요, 저더러 기사님과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특수학급에서 필요한 것은 다 가져다 쓰래요,
<2012년 3월 3일 면담 중에서>

④에서는 조 교사가 한 달 동안의 학급 시설 설비 및 예산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학급 신설 시 희망하는 교육청의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신설학급 개설 시 2천만원의 시설비를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부담하자마자 집행해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의 지원 시스템이 작동하여 기본적인 학급 설비는 갖춘 뒤 특수학급 교사를 발령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말하고 있다.

④ 교육청에서 신설학급 시설비 예산을 지급해줄 때 학교에 교부하는 것 말고, 아예 그 예산으로 꾸며주고 난 후 교사를 발령을 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천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구조화되어야 하고, 시설 설치 정도는 해주고 난 다음에 발령을 내서 좀 더 교육활동에 집중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일반 선생님이 저 보고 행정실 직원 같다고 해요,
<2012년 3월 31일 면담 중에서>

⑤에서는 박 교사와 달리 특수교육보조원을 학교에서 신청하여 배치 받고 인턴 교사는 배치 받지 못한 정 반대의 상황이다. 조 교사는 특수교육보조원과 호흡을 잘 맞춰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턴교사의 배치 필요성은 많이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요즘은 공분도 별로 내려오지 않아요, 행정적으로 어려움 없어요, 특수교육보조원은 잘 적응하시고 잘 도와주세요, 인턴교사는 배치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이 많지 않아서 따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어요,
<2012년 6월 5일 면담 중에서>

2) 관리자 및 동료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특수교사와의 관계

특수학급 교사가 특수학급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장과 교감의 역할이었다(최월순, 2011). 조 교사의 신설 특수학급 직무 경험 중에서도 가장 많은 갈등의 발생과 해결 노력이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①~②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자 및 동료교사와의 관계 형성뿐만이 아닌 특수학급에 대한 이해도 및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까지 직접 설득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

을 경험하게 된다.

① 특수학급 학생의 통합학급 적응기간에 대한 개념도 하나도 없으셔서, 여러 학교에서 받았던 자료, 운영계획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특수학급 학생들은 통합반에 가고 그럼 2주 동안 특수교사는 뭐 하시느냐?' 고 물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들은 교육과정도 짜고, 진단평가 및 학부모 상담도 하며,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등등 이런 일들을 한다.' 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게 참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2012년 3월 3일 면담 중에서>

② 물품 하나를 살 때도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해요, 왜 사야 되는지부터요, 이번 주도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풀었거든요, 많이 번거롭고 부담스럽지만 1년 동안은 계속 미리 설명 드리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특수학급 운영계획을 이미 결재를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결재만 하시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세요, 일반학교에만 근무하신 분들이니까 생소한 거죠,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더니 좀 언짢아 하셔서 미리 품의한 것에 대한 설명을 자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12년 4월 15일 면담 중에서>

②~③에서는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들의 특수학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해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일반학교에 입학한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 없이 별도의 특수학급에 학적을 두고 완전히 분리된 교육을 받을 뻔 했던 경험을 말하고 있다.

② 제일 처음에 어이가 없었던 게 특수학급 학생들의 일반학급 통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잖아요, 다른 특수학급 교사들은 '왜 통합학급에 학적이 없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건데...!' 라고 말하고, 하늘시 특수학급 운영지침에는 별도 반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금지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나 봐요, 주변에 자문을 구했을 때 누가 운영계획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해준 것 같아요.(중략)

③ 교무부장님은 딱 잘라서 '장애학생들을 일반학급에 학적을 두자고 하시면 일반선생님들이 싫어하시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감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교감선생님께서 그 전 학교에서 특수학급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직원 출근일인 2월 27일 학교에 나왔더니 그 때도 학생들이 1학년 14반(특수학급)에 학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1학년 담임들 모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통합학급이 있어야 된다.' 라고, 다른 학교에서 경험이 있었던 선생님 몇몇 분은 '그래' 라며 공감을 해 주셨고, 학

11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3권 4호)

년부장님이 직접 가셔서 교무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제서야 통합학급을 배정해주시더라고요,

<2012년 3월 3일 면담 중에서>

④~⑤에서는 고등학교 신설 특수학급에 발령 받은 후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조 교사는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낯선 학교 환경에서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 조 교사는 소수 과목 교사들의 협의회와 과정보별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④ 국어교사는 국어교사들끼리 몽칠 수가 있고, 하다못해 일어 등도 제2외국어라고 해서 모임을 갖고 시간표 배정도 같이 짜다고 하던데, 특수교사는 저 혼자니까 이 시스템에서 저는 시간표도 혼자 짜야 해서 막연하고 그래요, 감정적으로 의지할만한 사람도 없고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012년 3월 3일 면담 중에서>

⑤ 부별협의회, 학년 협의회, 과목별 협의회도 있고, 이번 주부터 하나씩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과목별 협의회는 기술, 가정, 한문이랑 같이 묶어놨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해요,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 넓혀야 되겠어요, 저는 어쨌든 끼워주니까 감사하죠, 이렇게 해서라도 얹혀야지 안 그러면 혼자서 좀 그렇죠,

<2012년 3월 10일 면담 중에서>

⑥ 특수학급이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행정실을 포함해서 교직원 대상의 사전 연수가 필요하다고 조 교사는 말하고 있다. 이미 특수학급을 접하거나 통합학급을 경험했던 일반교사들은 협력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⑥ 다른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많이 접하신 젊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열려있어요, 나이 많은 관리자 분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나온 오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사전에 연수를 통해 담당 관리자 분들을 먼저 이해를 시켜 놓고 개설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장, 행정실 직원, 동료교사들까지 해서 사전에 어떤 교육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2012년 3월 31일 면담 중에서>

⑦~⑨에서는 조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관리자와 일반교사들이 조금씩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특수교사와의 협력 분위기가 형성하면서 자리를 잡아

가는 과정들을 보여준다.

⑦ 마음은 항상 무겁지만 잘 적응하고 있어요, 갖출 것은 이미 대부분 갖췄고, 수업하면서 필요한 교재나 교구는 꾸준히 채워가려고요, 예산은 완전히 다 내려왔어요, 3, 4월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어요, 선생님들과도 처음보다는 친밀해졌고요,

<2012년 4월 29일 면담 중에서>

⑧ 통합반 담임선생님들은 통합된 상황에서 학습지도를 해줄 때, 우리 학생들을 생각보다 많이 신경 써 주세요, 다른 학교에 근무할 때 특수학생들 경험해봤다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잘 도와 주세요

<2012년 6월 5일 면담 중에서>

⑨ 관리자 분들이 예전처럼 하시지 않고, 잘 해주시고 계세요, 같은 연구실 쓰는 선생님들과는 어느 정도 친밀해졌어요, 그 외에는 아직도 좀 낯설어요, 통합반 선생님들과는 가끔 사안이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012년 6월 28일 면담 중에서>

3)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에 대하여

①~②에서는 조 교사가 3월 1~2주간 실시되는 특수학급 학생들의 통합학급 적응기간에 대해서 부모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신설학급이어서 아직 교구나 학급 환경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것을 조 교사가 느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① 제가 그냥 먼저 '지금은 적응기간이라 특수학급에서는 지금 수업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학교가 신설이라 시설 같은 게 많이 구비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다,' 라고요, 다행히 부모님들은 납득하시더라고요,

<2012년 3월 3일 면담 중에서>

② 신설학급이어서 아직 교구나 학급 환경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모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신설인건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더 필요한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누가 와서 하나하나 점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2012년 3월 31일 면담 중에서>

③ 특수학급 학생의 통합학급 배치가 조 교사를 배제하고 이루어졌으며, 특수학급과 관련된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하는 고충을 말하고 있다.

③ 특수학급 학생 6명은 1반부터 3반까지 2명씩 넣었어요, 우리 교실이 1층에 있어서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이 이왕이면 가까운 것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특수학급과 관련된 모든 일을 제가 다 하려니까 특수학급 시스템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려니까 우왕좌왕 하는 것 같아요,

<2012년 3월 10일 면담 중에서>

④에서는 방과 후 수업을 1년간 운영하기 위해 주변의 도움을 구하며 힘들게 준비하고 개설하였으나, 학생들의 선택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에는 예산과 시간이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

④ 방과 후 수업 운영에 대해서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고, ○○고에도 물어보고, 그동안 받아 놓았던 자료에서도 강사 찾아보고 전화해서 겨우 구했어요,

학급 별로 예산이 나오는데 우리 학교는 한 학급밖에 없으니까 280만원만 내려온 거예요,

방과 후 교육활동 반이 여러 개면 서로 자기 하고 싶은 것, 선택권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개설하는 게 시급하니까...

<2012년 3월 10일 면담 중에서>

⑤에서는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통합교육의 모습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조금씩 개인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담당교사로서 마음이 편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저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특수학급으로 왔으니까 통합교육을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신선하고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이렇게 어울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수학교에 있을 때는 통합교육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었는데 그런 점이 조금은 변화가 있어요, 갈수록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2012년 3월 31일 면담 중에서>

⑥~⑦에서 알 수 있듯이, 조 교사는 정신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과정을 거쳤다. 어떻게 학급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많은 혼란 속에서 고민과 노력을 해왔고 그러면서도 특수학급 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별 일 없이 무난하게 보냈어요. 5월에 걷기대회, 백일장 등 학교행사가 좀 있었는데 잘 참여했어요. 두 달 반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시간이 많이 흘러간 느낌이 안 들어요. 아직도 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서로 실정을 모르니까 그 사이에서 조금씩 부딪히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2012년 5월 14일 면담 중에서>

⑦ 아직까지 뿌듯할 정도로 특수학급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많이 정착이 되었고 분위기도 조금 형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행이다 싶어요. 내년에 어떤 특수학급 선생님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구비했는데, 다음에 오실 선생님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좀 있긴 해요.

<2012년 6월 5일 면담 중에서>

4)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2월 발령 후부터 여름방학을 준비하는 7월까지의 시간 동안 교육청, 관리자, 행정실, 동료교사, 일반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박 교사는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자신만의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기반성 및 개선의 계기로 삼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텅빈 교실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의 막막함, 업무(수업, 특수학급 꾸미기, 특수교육 관련 업무 등), 관리자(교장선생님 등)들의 오해 등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식은땀이 날 것 같네요. 게다가 통합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배운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저 자신이 학교에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설학급이라 특수교육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 한사람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제가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관리자, 행정실 및 주변 선생님들의 협조를 구해야 원활하게 특수교육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신 관리자나 부장님들께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설명할 때에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설명 드려 이후에는 많은 협조를 받았어요. 물론 처음 신설되는 특수학급으로 가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없이 학급을 꾸미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변 학교 특수학급 선생님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정서적으로 의지도 많이 되었습니다.

아직 특수학급이 신설된 학교에서 처음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

으로 꾸준히 만들어질 특수학급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내어 일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17일 면담 중에서>

3. 배 교사의 직무 경험 이야기

배 교사는 2012년 3월 1일자 전보발령 결과를 2월 10일에 통보 받고 난 후 ‘비록 제가 희망했던 학교는 아니었지만 집에서 멀지도 않고 교통이 편리해서 그럭저럭 만족해요’ 라고 예비면담 시 말을 했다. ‘물론 신설학급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청하고 열심히 하다보면 잘 되겠죠?’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강했다. 물론 신설학급을 개설해야 하고 시간과 예산의 부족으로 부담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특수학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기는 했으나, 교육경력이 18년이 넘는 베테랑 교사로서의 여유가 보였다. 다른 연구 참여자인 박 교사와 조 교사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1)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에 대하여

①~③에서는 배 교사가 학교장이 예산 집행에 배려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상황과 특수학급의 위치 및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비 공사를 주도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교사 개인적인 친분관계 차원에 의한 주변인의 도움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의 신설 특수학급 컨설팅 시스템의 필요성과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신설학급 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제반 행정처리를 미리 처리할 수 있도록 검직발령과 같은 행정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① 신설학급 개설 비용이 2천만원 내려오는데, 제가 갔을 때는 아직 예산이 배부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교장선생님께서도 예산이 내려올 것을 아시니까 기존의 다른 항목의 학교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빨리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용해야 할 교실을 한 번만 보고 어떻게 공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학급이 개설 될 계획이 확정되면, 그 학교에 배치되는 사람이 아니라도 특수학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배치가 되려면 ‘내 팀이 한 명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2년 3월 3일 면담 중에서>

② 고등학교는 본청 소속이니까 ○○○ 장학사님께 여쭙봐야 하는데 전화 받기도 바쁘시잖아요, 그러니 교육청 차원에서 개설운영 지원팀 같은 것을 운영해서 개설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및 지원 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해서 처리했어요, 교육

청에서 특별히 도움을 받은 것은 없어요.

<2012년 3월 3일 면담 중에서>

③ 학교 옮겨 가기 전에도 이중발령이나 겸직발령 같은 것으로 기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인 행, 재정적인 지원이나 컨설팅 팀 운영 등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12년 3월 11일 면담 중에서>

④에서 배 교사는 실제 특수학급을 운영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양식조차도 교육청에서 안내 혹은 점검을 해주지 않는 점을 매우 아쉬워 하고 있다.

④ 신설학급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제에 대해 아쉬운 점으로 가장 실감나는 것은 학급운영비를 아직도 내려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예요, 그러니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차선책으로 학교차원에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특수학급 신설을 위한 급한 부분에는 예산의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좋은 친구 프로그램(장애학생 도우미)을 운영하는데 파티 같은 것도 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제 사비로 했어요

<2012년 3월 21일 면담 중에서>

⑤에서는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컨설팅 장학단의 학교 방문을 신청하여 혼자서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도움 및 자문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⑤ 장학사님이나 컨설팅 장학단이 와서 교실 확보를 더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만 이야기 하는 것 보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012년 6월 21일 면담 중에서>

2) 관리자 및 동료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특수교사와의 관계

배 교사는 다행스럽게도 부임한 학교의 교장이 전 근무학교의 교장과 친분관계가 두텁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직접 특수교사로서 근무 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는 다른 두 연구 참여자와는 확연하게 다른 직무 경험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해석된다. ①과 ②는 학교의 최고 결재권자인 교장의 이해와 지지가 다른 동료교사들의 협력과 이해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2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3권 4호)

①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특수교사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이전 근무했던 학교 교장선생님과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해주세요, 관리자 이해부분은 어려움이 없는데, 선생님들은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실장님도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시더라고요, 처음 차임계 작성하러 간 날에도 점심 같이 먹자고 챙겨주시고, 교장선생님께서 다른 사람들 있는데서 계속 고생한다고 말해주셨어요,

<2012년 3월 3일 면담 중에서>

② 직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은 교장선생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께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 한다, 학부모가 오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2012년 3월 3일 면담 중에서>

③에서는 배 교사가 특수학급 교내 개방을 실시했던 내용이다. 부임 후 약 두 달 동안 본인 스스로 평가했을 때에도 인정할 만큼 성실하게 근무하고 일반교사와 행정실 직원들과 공동체로서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특수학급 학생 및 배 교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늘어나고 배 교사 스스로도 편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③ 지난 목요일 특수학급 실들이 했어요, 집들이 같은 것이예요, 일반학급 선생님들이 다 특수학급에 오셔서 특수학급을 어떻게 꾸며 놓았는지 봤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우리 반 학생들의 특성을 설명해주고, 그동안 활동한 것 사진 붙여놓고 설명 했어요, 다른 선생님과의 친밀도, 이해도가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별로 안 좋게 바라보던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사랑으로 열심히 지도하는구나' 라는 눈으로 보시고, 격려해주는 쪽지를 보내 주기도 해요, 제 마음도 한결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2012년 4월 28일 면담 중에서>

④에서 배 교사는 몇 달 동안 일반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학급 교사로서 근무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전문가로서 일반교사와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해 자신이 더 노력하고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④ 특수교사가 전문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일반교사가 자문을 구할 경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인정받을 것 같아요,(중략) 우리학생들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경계선급 정도의 학생들이 반에 한 두명은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물어올 때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어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지 존재가치도 인정받는 것 같아요.

<2012년 6월 9일 면담 중에서>

3)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에 대하여

①은 배 교사가 신설 특수학급에 대한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②는 일반학생 위주로 이미 짜여진 특별실 사용의 어려움을 교육과정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특수학급 학생들의 통합학급에서의 원만한 적응을 돕기 위하여 일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학생 도우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

① 학생들을 어제 보고 장애 정도는 대충 파악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는 겉모습만 보이는 거니까 더 봐야 돼요, 그런데 학부모님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직 특수학급의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으니깐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학부모님들은 특수학급이 개설되는 것만으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012년 3월 3일 면담 중에서>

② 좋은 친구 프로그램(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도 우리 학교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만 통합학급 담임선생님께서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시도했어요, 컴퓨터실을 특수학급이 사용한다고 하면 조금 번거로울 것 같아서 1학기 때는 바느질 쪽으로 돌리고, 2학기 때 관계형을 잘 해서 컴퓨터실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연습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매 와서 하려고요.

<2012년 3월 21일 면담 중에서>

③에서는 배 교사가 담당하는 특수학급 학생 중에 청각장애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 특히 하늘시의 경우는 공립 특수교사는 시각, 청각 특수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말하고 있다.

③ 저도 특수학급 학생들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우리 반에 청각장애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에 대한 지원을 미리 해 놓아야 할 것 같아요, 신규교사는 말 할 것도 없고 저는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장애영역만 접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2012년 3월 10일 면담 중에서>

④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배 교사가 학교 안에서 특수교사로서 인정받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생지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④ 지금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퇴근시간도 못 지키고 늦게 가요, 교무실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다른 선생님들이 보니까 관리자나 주변 교사들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해요, 서서히 특수반 학생과 일반 학생의 관계 때문에 조금씩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2012년 6월 9일 면담 중에서>

4)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2월 발령 후 부터 여름방학을 준비하는 7월까지의 시간 동안 배 교사는 큰 어려움 없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여 왔다. 처음의 낯선 느낌과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학교 안에서 많이 겪었지만 앞으로의 더 나은 학교생활을 기대하고 있다. 특수학급 업무처리에 대한 교육청 및 행정실의 매뉴얼과 지원시스템이 있다면 더욱 더 수월하게 특수학급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배 교사는 말하고 있다.

2월 인사발령 통보를 받고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 특수학급 발령을 받고 왔을 때... 신설학급이라 모든 것이 서로가 낯설었습니다.

처음엔 많은 선생님들이 '인문계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일반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특수교육에 경험이 있으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행정실에서도 처음엔 특수학급이 처음이라 행정적인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협조를 잘 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특수학급 업무처리에 대한 행정실의 매뉴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와 수업을 혼자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신을 조금 차려 여유 있게 2학기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설학급 개설 시 특수교사 2명을 배정하여 특수학급을 개설하도록 한다는 ○○도가 무척 부럽습니다.

<2012년 7월 23일 면담 중에서>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신설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발령을 받고 부임 후 일반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특수학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결실들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심도 있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 결과들을 분석하여 유목화하고 분류한 결과, 고등학교 신설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사의 직무 경험을 행·재정적 지원시스템, 관리자 및 동료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특수교사와의 관계,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의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런 다음, 경쟁 선발 시험인 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특수교사란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특수교사들이 당연히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특수학급에 발령받은 교사들은 발령 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다. 게다가 특수학교에서 적게는 5년, 많게는 18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특수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신설학급에 발령 받은 후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수교사가 신설 특수학급에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거쳐 어려움을 이겨내 나가는가?

이 연구는 신설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다음과 같은 몇 단계를 거치면서 신설 특수학급 담당교사로서의 직무능력을 성장시켰음을 보여 준다. 첫째, 예기치 못한 문제와 대면하는 단계, 둘째, 시행착오 단계, 셋째, 고민과 개선의 노력을 통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신설 특수학급 담당 교사는 낯선 교육 환경에 점차 적응하고 성장해 간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상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크게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 관리자 및 동료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특수교사와의 관계,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신설 특수학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의 부재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세 연구 참여자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기존 특수학급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학급 신설 지원팀이나 신설 지원 웹사이트의 운영, 신설 특수학급을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시스템 마련 등을 세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는 광지혜, 김호경, 박원희(2009)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특수교사에게 특수학급 신설에 대한 연

수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관리자 및 동료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들과 특수교사 간의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관리자가 특수교사 경력이 있거나 사전에 특수학급의 필요성에 대한 연수가 있었던 학교에 발령이 난 배 교사의 경우와는 달리, 박 교사와 조 교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여러 번의 의견 충돌 및 시행착오,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뒤에는 조금씩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한 심리적 소진(burn out) 및 원활한 특수학급 운영의 지연 등의 결과는 불가피하였다.

셋째,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연구 참여자인 세 교사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을 위한 통합학급교사, 일반학생 및 학부모, 장애학생 및 학부모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존 특수학급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장애학생의 통합교육환경을 처음 접하게 되는 일반교사의 비협조와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 등이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 및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신설 특수학급 담당 교사에게는 큰 난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인 박 교사, 조 교사, 배 교사는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척 난감해 했다. 이들은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몰랐지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 결과 세 교사는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세 교사는 고민과 자기반성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들은 모두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미숙한 것에 대해 자책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대처형, 소극적 수용형, 독자적 자기 개발형의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한다(이상은, 조원일, 2009).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 신설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대한 지원 및 연수도 없이 특수교사를 발령을 낸 후 대부분의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교육행정은 교사 개인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특수학급 운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특수학급 학생, 일반학급 학생, 일반교사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크다.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연구자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았다. 교육청 차원의 연수에서 신설 특수학급 교사로서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배우는 것과 실제로 발령 받은 후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 신설업무와 관련된 경험을 하면서 깨우치며 배우는 것 이외의 부족한 해결책이 더 있을까? 모두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일련의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일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연수를 통해서 이런 문제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교육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수교사가 학교에서 직면할 상황 자체를 모두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상황을 모두 교육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 특수학급 교사가 첫 발령 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당혹스러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거나 가능한 한 좀 덜 직면하도록 하거나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본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권미숙(2004)의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안에 착안하여 우리도 특수교사가 예기치 못한 문제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러한 문제나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즉 ‘학교 읽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읽기에 기반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특수교사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여 혼자서 고민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는 주변 선배 특수학급 담당교사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신설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사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직면한 문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하고 세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에 더하여 교원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학급경영 등 신설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한 교육 내용을 다루었으면 한다. 그리고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신설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지원 체제를 개선함으로써 특수교사가 겪는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학생들을 좀 더 의미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가고자 노력하는 것도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선화, 정길순, 노진아 (2010).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교사의 직무만족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5(2), 227-250.
- 강윤구 (2002).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지원정도와 교사의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전국의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곽지혜, 김호경, 박원희 (2009). 중·고등학교 신설 특수학급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연구**, 16(2), 67-88.
- 권미숙 (2004).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초기 6개월간의 교직 적응 과정 연구: 내러티브적 접근.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고경희 (2012). 신설학교에 발령 난 신규교사들의 교직적응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석사학위 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립특수교육원 (2012). **2011 특수교육 실태조사**.
- 김경숙, 이점조 (2008). 학교장의 지도성 유형과 특수학급 교사의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발달장애학회**, 12(1), 113-127.
- 김영한, 추경진 (2010).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 스트레스, 교사 효능감과의 관계. **특수아동교육연구**, 12(4), 413-432.
- 김재춘, 박정순, 강희중 (2010).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교과지도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과학연구**, 41(1), 65-96.
- 김재춘, 박정순 (2010).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생활지도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7(1), 95-120.
- 김향지 (2009). 일반 초등학교 초임 특수교사의 고충과 교직 적응 지원 방안. **지적장애연구**, 11(3), 335-350.
- 노현지 (2007). 특수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승희 (2003). **한국 장애학생 통합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박재범 (2010). 중등 특수학교 초임교사의 교직적응에 관한 사례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7(2), 53-72.
- 양승기 (2010). 특수학급 교사의 교직적응에 관한 연구: 신규 기간제 교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상은, 조원일 (2009).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의 직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2), 1-32.
- 정경용, 조정연 (2011). 특수학급교사의 직무환경위험요인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4), 1-20.
- 최월순 (2011). 중등 특수학급 교사의 교직사회화 과정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황순영 (2006). 초임특수교사의 교직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0(4), 185-210.

A Narrative Inquiry into Teachers' Job Experience of Newly-Established Special Classes at High Schools

Kim, Yong-wook

Daegu University

Park, Hyeong-jin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understand three newly-appointed teachers' experiences in Newly-Established Special Classes at High Schools through narrative inquiry. Narrative inquiry was adopted to reveal the meaning of educational experience of adapting. I want to take advantage of the narrative, which is considered to be suitable for studies of human experience and cultural context specifically explore method.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After five months of having an experience in Newly-Established Special Classes at High Schools, Three teachers have changed as a three-step. The first step is to face-to-face with an unexpected problem, The second step is to undergo a trial-and-error, Third, go own way through the agony and the efforts of the improving step process. while experiencing These courses, Three Teachers in Newly-Established Special Classes at High Schools have gradually adapted to the strange environment of education and grown.

Key Words : Newly-Established Special Classes at High Schools, Job Experience, narrative inquiry

논문 접수: 2012. 11. 01 심사 시작: 2012. 11. 13 게재 확정: 2012. 12. 20